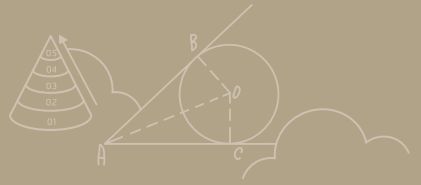




2026학년도 KU모의논술 통합 문제 해설



1 출제 의도

▶ 문제 1

2026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의논술(통합)의 [문제 1]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대학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이해력, 분석력과 추론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고등학교 국어, 화법과 작문,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뽑았으며, 고등학교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응시자라면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 1]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중요성이다. 수험생들은 세상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의 관점을 참고하여 [나]와 [다]에 나타난 삶의 태도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이미 특정하게 규정된 '덧 내림 효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소비 심리 분석을 통해 보여주는데, 여기서 '덧'은 개인의 행동에 작용하는 기준이나 통념, 혹은 우리의 언행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적 틀을 의미한다. [나]는 우리가 뭔가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제시된 기준인 덧에 의해 자기도 모르게 무비판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한편 [다]는 '보다'와 '겪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느끼는 삶의 방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보다'가 주어진 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라면, '겪다'는 오감을 활용해 내 경험의 폭을 넓히는 능동적 자세라고 볼 수 있다. [다]는 '겪음'을 통한 성찰의 과정이 세상에 대한 주체적 관점과 태도로 이어지는 양상을 잘 보여준다.

수험생들은 이렇게 [가], [나], [다]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체의식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히 각 지문의 요점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 [나]와 [다]에 묘사된 삶의 태도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나]에서는 외부에서 제시한 기준이나 조건이 개인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수동적으로 길들일 수 있음과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다]에서는 버스를 타고 빠르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움직여 걸으며 이것저것 경험하고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자신만의 덧을 내리는 주체적 삶의 자세의 중요성을 짚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문제 2

[문제 2-1] 좌표평면 위에서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판별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2] 지수함수와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이를 이용해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3] 정적분을 이용하여 좌표평면 위에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2 문항 해설

▶ 문제 1

[가], [나], [다]는 모두 행동과 판단에서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나]와 [다] 지문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한다. 특히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 관점을 확장하고 편견을 극복할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나] 지문에서는 '덧 내림 효과'를 통해 우리의 판단과 사고가 이미 특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덧'은 행동에 작용하는 기준이나 통념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고 믿는 순간에도 실은 의식의 틀로 작용하며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치약 한두 통을 구매하려 했으나 판매자가 '5통까지 구매 가능'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그 숫자를 기준 삼아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덧 내림 효과'는 인간의 판단과 행동이 외부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내지 통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다] 지문은 '보다'와 '겪다'라는 태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치며 경험하는 삶의 방식이 관점의 확장과 인식의 전환을 이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다'가 주어진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수동적 태도라면, '겪다'는 오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경험의 폭을 넓히는 능동적인 자세이다. 지문에서는 이를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비유한다. 즉, 몸을 통한 주체적 경험은 편견을 극복하게 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도 아날로그적 방식처럼 더 깊이 있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문항에서는 단순히 지문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나] 지문에 대해서는 외부적 기준에 의해 휘둘리는 판단의 수동성 문제를 분석해내고, [다] 지문에서는 그에 대한 극복 방식으로서의 주체적 경험을 통한 관점 확장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버스를 타고 빠르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걷고 뒷골목을 탐색하며 사람들과 마주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덧'을 새롭게 내리는 주체적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세상에 대해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과정이란 외부로부터 주어진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의 '덧'을 내리는 일이며, 이를 통해 편견과 협소함을 벗어나 더 넓고 객관적인 시야를 획득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 문제 2

[문제 2-1] 좌표평면 위에서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위치관계를 이해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판별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2] 지수함수와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정의와 기본 성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며, 이를 이용해 부등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문제 2-3] 정적분을 이용하여 좌표평면 위에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3 채점 기준

▶ 문제 1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1 [가], [나], [다]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나], [다]의 논리적 연계성 파악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내용
	① [가]에 비추어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나]에서 ‘덧 내림 효과’는 인간이 판단을 할 때 초기 기준이나 외부 정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선택이나 기준이 주체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쉽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50점
	② [가]에 비추어 [다]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다]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로운 버스 타기와 걷기 같은 일상적 경험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겪는’ 체험적 삶의 방식의 전환이 세상을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 인식 확장으로 이어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가], [나]와 [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는가? [나]는 판단의 기준이 외부에서 제시된 수치나 정보에 따라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다]는 익숙하고 편리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몸으로 겪는 경험을 통해 판단의 기준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두 지문은 단순히 대립적이라기보다, ‘덧’이라는 기준 역시, 성찰을 통해 자신의 판단 방식과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능동적 선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는 또한 당연히 [가]와 연관되며 지문 간의 이러한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나]와 [다]가 제시하는 삶의 태도와 판단 기준의 차이를 통합적이고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는가? [나]는 외부에서 주어진 기준에 따라 판단이 조정되는 무비판적인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 [다]는 겪음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재설정하는 주체적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때 몸으로 겪는 경험은 판단 기준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옮기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며, 삶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감각과 시선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명료하게 서술한 경우, 삶의 태도와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성찰한 답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하여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는가? 어휘 선택의 적확성, 구문의 정확성, 문장 및 단락 간 연결의 자연스러움 등의 측면에서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점

▶ 문제 2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1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B+: $a+b=1$ 을 맞게 구함. 그리고, \overline{AB} , \overline{AP} , \overline{BP} 를 맞게 구함 B: $a+b=1$ 을 맞게 구함 C: $a=2$ 또는 $b=-1$ 을 맞게 구함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15점
문제 2-2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B+: B단계의 풀이로부터 $n=1, 13, 25, \dots$ 또는 $n=5, 17, 29, \dots$ 을 구함 B: 삼각함수의 값 $\sin \frac{n\pi}{6} = \frac{1}{2}$ 을 구하고, 이와 함께 n 의 범위 $2^{10} < n < 2^{12}$ 를 구함 C: 삼각함수의 값 $\sin \frac{n\pi}{6} = \frac{1}{2}$ 을 구하거나 또는 n 의 범위 $2^{10} < n < 2^{12}$ 를 구함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15점
문제 2-3번	A+: 답과 풀이가 맞음 A: 풀이가 맞았으나 사소한 계산 실수가 있음 B+: $f(m)$ 과 $f'(m)$ 을 정확히 구함 B: 삼각형 APP_1 과 AQQ_1 의 넓이를 정확히 계산하거나 $1-x^2$ 의 정적분을 정확히 계산함 C: 점 P와 점 Q의 좌표를 m 으로 나타냄 D: 풀이와 관계있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함 F: 답안이 공란이거나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적음	20점

4 예시 답안

▶ 문제 1

세상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의 관점은, [나]와 [다]가 보이는 삶의 태도와 판단 기준의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나]는 소비자가 사전에 정한 구입량이나 제시된 숫자에 따라 선택을 조정하는 '땀 내림 효과'를 통해 외부 환경이나 사회적 통념이 개인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차량 다섯 통'이나 '최소 연봉 기준' 같이 외부에서 정한 숫자가 기준이 되고, 판단이 그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다]의 '나'는 처음에는 버스를 타기 시작하면서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지만, 그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걸으면서 시장과 골목을 누비는 일상적인 경험의 전환을 통해 차창 밖을 '보는' 데서 나아가 직접 세상을 '겪으며'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나]는 외부 조건에 의해 판단이 조정되는 방식이라면, [다]는 능동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 가는 주체적 모습을 보여준다. 결국, 경험하고 성찰하는 삶의 태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형성하게 하며, 이는 세상을 편견 없이 보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야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593자)

▶ 문제 2

[문제 2-1] 정답: (1) 1, (2) $\frac{3\sqrt{10}}{10}$

[풀이]

(1) $kx - 5 = (x - 3)^2 + 2$ 가 $x \geq 3$ 일 때 실근을 가져야 한다.

정리하면 $x^2 - (k + 6)x + 16 = 0$ 이고, 판별식 $D = (k + 6)^2 - 4 \times 1 \times 16 = k^2 + 12k - 28 \geq 0$ 이어야 하므로 $k \leq -14$ 또는 $k \geq 2$ 이다. $x \geq 3$ 일 때 실근을 가지므로 $k \geq 2$ 이고 따라서 $a = 2$ 이다.

곡선 C_2 는 곡선 C_1 을 원점에 대칭이동한 것이므로 방정식은 $y = -(x + 3)^2 - 2$ ($x \leq -3$)이다. $kx - 5 = -(x + 3)^2 - 2$ 가 $x \leq -3$ 일 때 실근을 가져야 한다. 직선 ℓ 은 기울기가 k 이고 점 $(0, -5)$ 를 지나는 직선이므로, k 는 곡선 C_2 의 꼭짓점 $(-3, -2)$ 와 점 $(0, -5)$ 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따라서 $b = \frac{(-5) - (-2)}{0 - (-3)} = -1$ 이다.

따라서 $a + b = 2 + (-1) = 1$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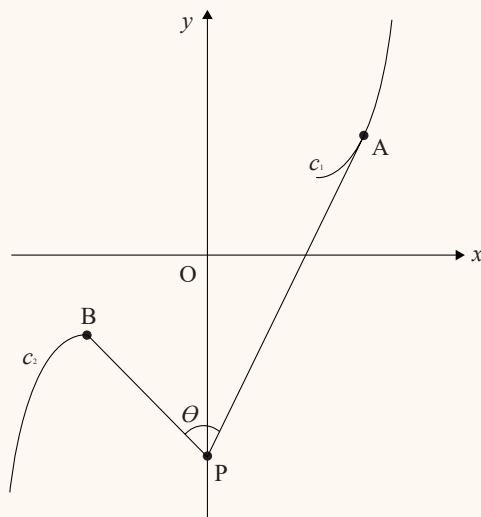
(2) 점 P는 직선 $y = 2x - 5$ 와 y 축의 교점이므로 좌표는 $(0, -5)$ 이다. $2x - 5 = (x - 3)^2 + 2$ 를 풀면 $x = 4$ 이고,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4, 3)$ 이다. 점 B는 곡선 C_2 의 꼭짓점 $(-3, -2)$ 이다. 따라서,

$$\overline{AB} = \sqrt{7^2 + 5^2} = \sqrt{74}, \quad \overline{AP} = \sqrt{4^2 + 8^2} = 4\sqrt{5}, \quad \overline{BP} = \sqrt{3^2 + 3^2} = 3\sqrt{2}$$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cos \theta = \frac{18 + 80 - 74}{2 \times 3\sqrt{2} \times 4\sqrt{5}} = \frac{1}{\sqrt{10}}$$

$$\sin \theta = \sqrt{1 - \cos^2 \theta} = \sqrt{1 - \frac{1}{10}} = \frac{3}{\sqrt{10}} = \frac{3\sqrt{10}}{10}$$



[문제 2-2] 정답: 512개

[풀이] $n \geq 1000$ 이므로 $\log_2 n > \log_2 512 = 9$ 이다. 따라서 $\log_2 n$ 은 양수이고 $5 < (\log_2 n) \sin \frac{n\pi}{6}$ 이므로 $\sin \frac{n\pi}{6}$ 도 양수이다. 또한 $\sin \frac{n\pi}{6} < \frac{6}{\log_2 n} < \frac{6}{9}$ 이고, $\sin \frac{n\pi}{6}$ 가 될 수 있는 양수 $\frac{1}{2}, \frac{\sqrt{3}}{2}, 1$ 중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은 $\frac{1}{2}$ 뿐이다. 따라서 $\sin \frac{n\pi}{6} = \frac{1}{2}$ 이어야 한다.

이때 $5 < \log_2 n \times \frac{1}{2} < 6$ 으로부터 $2^{10} = 1024 < n < 2^{12} = 4096$ 을 얻는다.

$0 \leq \theta < 2\pi$ 일 때 $\sin \theta = \frac{1}{2}$ 이면 $\theta = \frac{\pi}{6}, \frac{5\pi}{6}$ 이다.

따라서 $\sin \frac{n\pi}{6} = \frac{1}{2}$ 인 자연수 n 은 $n = 1, 13, 25, \dots$ 또는 $n = 5, 17, 29, \dots$ 이다.

이 중 $1024 < n < 4096$ 을 만족시키는 n 은

$$1033 = 12 \times 86 + 1, 1045 = 12 \times 87 + 1, \dots, 4093 = 12 \times 341 + 1 \text{의 } 256 \text{개와}$$

$$1025 = 12 \times 85 + 5, 1037 = 12 \times 86 + 5, \dots, 4085 = 12 \times 340 + 5 \text{의 } 256 \text{개이다.}$$

따라서 답은 $256 + 256 = 512$ 개다.

[문제 2-3] 정답: $m = \frac{6-2\sqrt{2}}{7}$

[풀이] 직선 AP, AQ의 방정식은 각각 $y = m(x+1), y = 2m(x+1)$ 이다.

$y = 1-x^2$ 과 연립하여 풀면 P, Q의 좌표는 $P(1-m, m(2-m)), Q(1-2m, 2m(2-2m))$ 이다.

점 P, Q에서 x 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_1, Q_1 이라 하면, $f(m)$ 은 정적분 $\int_{1-2m}^{1-m} (1-x^2) dx$ 의 값과 삼각형 AQQ_1 의 넓이를 합한 값에서 삼각형 APP_1 의 넓이를 뺀 값이다.

$$\text{삼각형 } APP_1 \text{의 넓이는 } \frac{1}{2} \overline{AP_1} \times \overline{PP_1} = \frac{1}{2} (2-m) \times m(2-m) = \frac{1}{2} m(2-m)^2.$$

$$\text{삼각형 } AQQ_1 \text{의 넓이는 } \frac{1}{2} \overline{AQ_1} \times \overline{QQ_1} = \frac{1}{2} (2-2m) \times 2m(2-2m) = 4m(1-m)^2.$$

$$\text{정적분의 값은 } \int_{1-2m}^{1-m} (1-x^2) dx = \left[x - \frac{1}{3} x^3 \right]_{1-2m}^{1-m} = 3m^2 - \frac{7}{3} m^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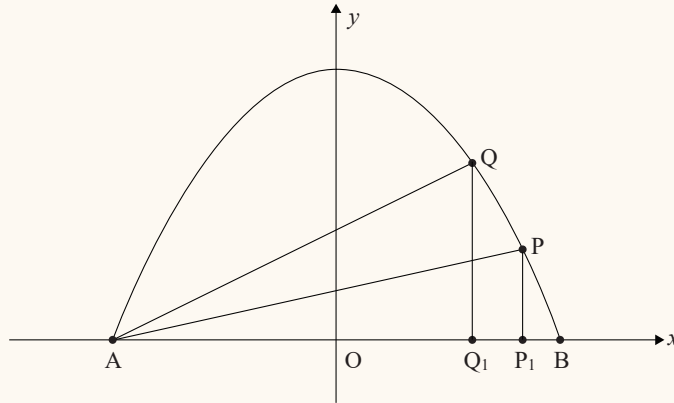
따라서

$$f(m) = 3m^2 - \frac{7}{3}m^3 + 4m(1-m)^2 - \frac{1}{2}m(2-m)^2 = \frac{7}{6}m^3 - 3m^2 + 2m$$

$$f'(m) = \frac{7}{2}m^2 - 6m + 2$$

$f'(m) = 0$ 일 때 $7m^2 - 12m + 4 = 0$ 이므로 $m = \frac{6 \pm 2\sqrt{2}}{7}$ 이다.

도함수 $f'(m)$ 의 부호를 이용하여 함수 $f(m)$ 의 증가와 감소를 고려하면 $m = \frac{6 - 2\sqrt{2}}{7}$ 일 때 $f(m)$ 이 최대이다.



5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2	[가]	x
국어	이성영 외	천재	2020	110-111	[나]	x
화법과 작문	박영민 외	비상교육	2020	200-201	[다]	x
수학	황선욱 외	미래엔	2018	157, 159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	2018	100		
수학 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17	26		
수학 I	고성은 외	좋은책신사고	2017	70		
수학 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7	139		